

이강욱 홍익대 교수 초대전이 오는 31일까지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열린다.



“공간·색채에 대한 탐구 추상으로 풀어냈죠”

그의 그림 앞에서는 오래 머물게 된다. 들여다 볼수록 '새로운 게' 보이기 때문이다. 가까이 다가가며, 또 멀어지며 작품과의 '거리'를 통해 무언가를 '발견'하는 즐거움도 있다. 마치 여러겹의 얇은 종이를 하나씩 들춰낼 때마다 '또 다른' 형상들이 숨어있는 것처럼 이리저리 흠여진 점, 선, 면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눈의 결정체처럼, 세포의 움직임처럼 보이는 요소들은 반짝이는 빛을 받을 때면 다른 모습을 연출한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다양한 '컬러'다. 비슷한 소재로 풀어낸 작품들에 각기 다른 생명력을 불어넣고, 다른 감정을 느끼게 하고, 다른 이야기를 상상하게 하는 건 바로 변화무쌍한 '색'이었다.

서양화가 이강욱(45)작가 초대전이 오는 31일까지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열린다. '움직이는 상(像) 변화하는 색(色)'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지오메트릭 폼', '제스처', '보이지 않는 공간' 시리즈 등 모두 89점이 나왔다.

한국 신추상의 계보를 잇는 작가로 평가받는 이 작가는 광주에서는 이번이 처음 작품을 선보인다. 구상이 강세인 광주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추상 작품으로 광주의 미술애호가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는 전시다. 아라리오갤러리 전속작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는 26세에 최연소 중앙미술대전 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동아미술상 등 국내 공모전을 휩쓸었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에 머물며 런던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2017년부터는 홍익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1층에서 만나는 제스처 시리즈는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 스핀지로 바르고 겹쳐가며 수많은 형상들을 만들어냈다. 수묵이나 수채화의 번짐 효과처럼 보이고, 중간중간 색연필로 세밀하게 그려넣은 그림들은 정적인듯, 동적인듯 다양한 느낌으로 다

이강욱 홍익대 교수 광주 전시 31일까지 무각사...작품 89점 자아 탐구 등 다양한 주제 작업



'보이지 않는 공간' 시리즈

가온다. 무엇보다 변화무쌍한 색채의 향연을 느낄 수 있다.

'색'에 대한 작가의 탐구는 지난했고, 그 결과는 전시장의 작품들이 그대로 보여준다.

"컬러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배경으로 사용하는 화이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색깔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곁에 어떤 색을 두는 지, 수없이 덧칠하고, 겹쳐 칠하며 만들어진 색깔들은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죠. 색깔은 인간의 감정과 비슷합니다. 수천 수만개의 색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죠."

홍익대 재학시절부터 그에게 회화 작업은 하나의 '실현'이었다. 생물학, 천문학, 물리학 등 과학적 접근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마음을 건드리는 주제가 생기면 레퍼런스를 찾기 위해 도서관으로 향했다.

잘 나가던 2000년대 전후 시절, 그의 고민은 '나'로 수렴했다. 그리고, 공간탐구로 나아갔다.

"나에 대한 생각과 탐구가 이어지던 시기였죠. 나를 결정하는 건 무엇인가를 생물학적으로 접근했어요. 제 세포를 현미경으로 채집해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작업했죠. 아주 작은 나의 존재를 쫓다보니 '공간'이라는 존재에 마음이 도달했습니다. 내 안에서는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그건 우주처럼 넓습니다. 하지만 또 우주라는 커다란 공간에서 보면 인간은 또 작은 존재이구요. 결국 인간이 그리는 공간은 상대적입니다. 미시적인 공간을 보여주는 데, 거기에서 거시적인 공간을 발견하는 '역설'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지오메트릭 폼' 시리즈는 영국 유학 시절 몰두한 고대 힌두 철학의 텍스트 '우파니샤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나의 의식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인가', '물질 이상의 것이 있는가' 등 철학적 질문을 대한 그만의 대답이다.

세밀하게 묘사한 작품들은 노동집약적이다. 때론 우연이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치밀한 계산과 구성으로 쌓아올리고, 그려넣은 요소들이다. 이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러운 유기적 움직임이 연출된다.

사실, 그의 작품은 작가와 함께 설명을 들으며 둘러봐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공간', '색채', '자아' 등 그가 천착해온 주제들은 '상대적'이라는 그의 말처럼 작품과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가며 각각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즐기는 것도 괜찮은 관람법이다. 분명 '새롭고, 의미있는 경험'일 터다. 한편 대구모교 기획된 이번 전시는 LS Electric, HT 현대에이치티가 메세나 협찬을 진행, 개최에 도움을 줬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10월호

예향



'내 인생의 첫 책'에 도전하는 초보 작가들 화순 만연산으로 '남도 오디세이 美路味路'

어렵게만 생각되었던 글쓰기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SNS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글을 자유롭게 올리면서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작가가 아니라도 책을 펴낼 수 있는 길이 다양해졌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10월호 특집은 '내 인생의 첫 책 쓰기'다. 광주시 광산구립 이야기꽃도서관의 그림책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내 인생의 첫 책'에 도전하는 초보 작가들의 이야기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독립출판, 인생 첫 책을 펴낸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예향 초대석이 만난 주인공은 이 시대 최고의 '글쟁이'로 불리는 강원국 작가다. 대통령의 글쓰기, '희망님의 글쓰기' 등 베스트셀러를 출간한 작가는 최근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합시다'를 펴냈다.

작가는 언론을 통해 매일같이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들의 거칠고 가시 돋친 말을 접한다고 전했다. 자신 또한 말로 인해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말은, 말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 주인이다." 말을 잘 한다는 것,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작가를 만나 말공부와 글쓰기에 대해 물었다.

그대 일부 부유층의 전용물로 여겼던 아트 컬렉션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아트페어를 통해 거실에 그림을 걸어 두는 초보 컬렉터에서부터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재산 증식의 일환으로 수집하는 아트테크까지 다양하다. 특히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MZ세대 등장으로 미술시장의 외연

이 넓어지고 있다.

기획 '올 가을 거실에 그림 한 점 걸어들까'에서는 코로나19 속에서도 호황을 맞고 있는 국내 아트페어에서부터 10월말 광주에서 열리는 '아트광주21'까지 미술시장의 트렌드를 살펴본다.

'남도 오디세이 美路味路(미로미로)'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화순으로 떠난다. 화순은 만연산 오감할 결길과 나릿재 옛길을 걸으며 산림치유와 힐링할 수 있는 생태도시이자 면역력 향상에 좋은 유기농 작두콩과 불미나리, 인진속 등 건강음료로 코로나19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안성맞춤인 고장이기도 하다.

'문화를 품은 건축물'은 강원도 인제 박인환문학관을 소개한다. 올해는 한국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시인 박인환이 태어난 지 95년이 되는 해다.

'한국의 산사를 가다' 시리즈는 광주 마곡사로 향한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는 백제 무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했다.

10월 31일까지 이어지는 202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현장을 화보로 만나보고, 주얼리 소품이라는 독특한 공간으로 호기심을 자아내는 예술카페 'No.8 in bminor(남버에잇 인 비마이너)'를 소개한다.

가곡 애창운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전남 우리가 곡부르기과 광주FC 유니폼을 입고 2021시즌 활약하고 있는 임지성,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보유자로 인정받은 박시영 인터뷰도 준비했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10월의 햇살'

윤림회 회원전, 11일까지 진한미술관

윤림회(회장 김은자) 20번째 회원전이 오는 11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진한미술관에서 열린다. 한국화가 석은 김재일 화백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지난 1998년 모임을 꾸린 윤림회는 그해 남도예술회관에서 창립전을 연 이래 모임을 '자연의 감성', '자연과의 은밀한 교감' 등 다양한 주제로 전시회를 열어왔다.

'10월의 햇살'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고재문·곽미녀·김성하·박광순·송금섭·신현재·심강식·양정숙·이재희·임추택·최일·한승상·황여숙

회원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단풍이 물든 가을 설악산, 겨울날의 상쾌함이 느껴지는 산정호수, 평화로운 통영 연화도 등 아름다운 산하의 사계절 풍광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또 안파푸르나의 아름다운 아침 풍경과 연꽃 만발한 한가로운 여름날의 어느날, 코로나로 지친 일상을 위로하는 작품들도 눈길을



김은자 작 '안파푸르나의 아침'

끈다. 김재일 화백도 활달한 붓 터치가 인상적인 '황산의 기운'을 찬조출품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도립국악단, '깍지 손 e 국악' 단소편 유튜브 공개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류형선)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깍지 손 e 국악' 단소편을 공개한다.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전 11시에 선보이는 이번 프로그램은 국악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제목은 '깍지 손 e 국악' 제 1탄이다. 초등 교과과정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수행평가이자 소리 내기의 어려움으로 많은 초등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줬던 '단소'를 안전 정복할 수 있는 시간이다.

전남도립국악단 상임단원이자 단소 연주자인 윤암현·강원집 단원이 강사로 나섰으며, 윤지법과 소리 내기 등의 단소 기본기부터 초등 교과에 수록된 민요, 전래동요 등을 중심으로 한 실전 연습까지 4주에 걸쳐 배우게 된다. 프로그램은 '단소와 친해지기', '단소 소리 내기-윤지법 배우기', '단소 실전 연습 1~4', '청성곡 감상하기, 정



간보 익히기'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전남도립국악단은 초등 음악교육에서 국악교육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깍지 손 e 국악' 사업 등 다양한 수업 자료와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문의 061-980-995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